

# 석담 이윤우의 師承과 交遊에 관한 고찰

구분옥\*

## ■ 차례 ■

1. 서론
2. 석담 이윤우의 사승관계
3. 석담의 율곡문인설의 訛傳과 오류
4. 師友와의 交遊
5.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석담 이윤우의 師承과 交遊에 대하여 논한 글이다. 이윤우의 스승은 두 분으로 모당 손처눌과 한강 정구이다. 이외에 그는 낙재 서사원에게도 평생 종유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윤우가 율곡 이이의 문인이었다는 설이 제기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박세채가 어릴 때 그의 內兄인 신경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을 기록한 자료에 의거하였다. 그러나 송시열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도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윤우의 향리의 벗은 한강의 문인이 대다수이며, 특히 도성유는 이윤우가 경성판관으로 있을 때 꿈속에서 본 모습을 시로 남기기도 하였다. 또 만년에 담양부사로 갈 때 준 관리들의 시를 살펴보면 그는 黨色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존경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당집』과 『모당일기』 등을 통하여 이윤우가 한강의 문인이 되기 이전에 모당에게 수업을 받았다는 것을 밝혔다. 또 이윤우가 한강의 문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당에게 출입하여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이윤우의 사승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의 학통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고, 그가 한강을 통한 퇴계학의 계승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주제어

석담 이윤우, 사승관계, 모당 손처눌, 한강 정구, 퇴계학

## 1. 서론

李潤雨(1569~1634)의 字는 茂伯이고 號는 石潭, 본관은 廣州이다. 그는 1569년(선조 2)에 칠곡의 上枝里(웃갯)에서 출생하였다. 23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38세에 문과에 합격하여 조정에 출사하였다. 그는 늦은 나이에 관직에 진출하였으나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광해조의 대북정권에 의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인조반정 후 다시 등용되어 관직에 종사하였는데 한강의 문인 중 비교적 높은 관직인 공조참의(정3품)에 오른 고관이었다.

이윤우는 문과에 합격하여 조정에 출사하기 이전인 38세까지는 향리의 유림이었다. 또한 그는 조정에 출사하고 난 이후에도 긴 기간 낙향하여 관직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영남지역의 많은 유림들과 교류하였는데, 특히 대구지역의 유림들과 교류가 깊었다. 그는 그가 거주하였던 칠곡(당시에는 성주에 속하였음)으로 인하여 성주의 유림으로 분류되기도

하나, 그의 종고모부이자 스승이었던 모당 손처놀이 처가인 인천 채씨 문중이 대구에 살았던 관계로 대구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그래서 그는 대구의 유림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는 21세에 한강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그가 한강에게만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그의 年譜나 行狀에 어릴 때 공부한 스승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윤우에 대한 연구는 문과에 오른 38세 이후의 관직생활과 당쟁에 관련된 연구에 치중되었다.

김학수는 2007년에 「寒岡(鄭述) 神道碑銘의 改正論議와 그 의미」라는 논문에서 朴世采의 말에 의거하여 이윤우가 한강에게 공부하기 이전에 율곡 이이에게 공부하였다<sup>1)</sup>고 하였다. 또 2011년에는 「석담 이윤우의 관직 활동과 학문적 위상」이라는 논문에서 『栗谷全書』와 『石潭文集』 어느 곳에도 이윤우가 율곡의 문인이라는 말이 없는데, 『석담문집』에서 이윤우가 율곡의 문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다.<sup>2)</sup> 이로 인하여 이윤우의 율곡 문인설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南人인 이윤우의 행적으로 보아 그가 율곡에게 공부하였다는 말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직 그 근거를 제시하여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없다. 논자는 본 논고에서 이윤우가 율곡에게 공부하였다는 말이 사실이 아님을 손처놀이 『모당집』과 『모당일기』, 손린의 『문탄집』 등을 중심으로 밝힘으로써 남인인 그의 학통과 행적, 그리고 한강과 율곡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김학수, 「寒岡(鄭述) 神道碑銘의 改正論議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 학보』42집, 조선시대사학회, 2007, 51-119쪽.

2) 김학수, 「석담 이윤우의 관직활동과 학문적 위상」, 『조선후기 당쟁과 광주이씨』, 권오영 외, 지식산업사, 2011, 200-206쪽.

## 2. 석담 이윤우의 사승관계

### 1) 모당 손치늘

석담 이윤우의 연보에는 그가 8세에 “처음으로 책을 받았다.[始受書]”고 하여 8세에 처음으로 공부를 배우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註에 “처음 공부함으로부터 講習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부모가 병이 날까 걱정하여 중지시키면 더욱 부지런히 하여 그치지 아니하였다.”<sup>3)</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보에는 누구에게 처음으로 공부하였는지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모당연보>에 의하면 이윤우는 어린 시절 대구의 수성(지금의 상동)에 있는 從姑母夫人 慕堂 孫處訥(1553~1634)에게 가서 공부한 것이 확인된다. <모당연보> 47세(선조 32, 1599) 7월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上枝에 가서 李氏門族과 함께 松巖公의 묘소에 성묘하였다. 李仲初 熙復, 李太虛 心海, 李謹思 心愨이 다 참석하였다. 鹿峯에 모여 강회를 열었다.(녹봉은 칠곡의 建甌山 아래에 있다.) 당시에 石潭 李茂伯 潤雨, 浣石亭 李君顯 彦英, 克明堂 張正甫 乃範, 李興雨가 모두 따랐다. 이무백은 선생(모당)에게 妻從姪이 되는데 이를 갑[髻鬢] 무렵부터 선생을 따라 배우고 강론 질의하여 장려와 허여를 많이 받았다.<sup>4)</sup>

3) 李潤雨, 『石潭文集(年譜)』, <연보 8세>.

4) 孫處訥, 『慕堂集』, 권6 부록, <연보 47세>. “往上枝, 與李氏門族, 省松巖公墓. [註] 李仲初熙復 李太虛心海 李謹思心愨, 皆參會 ○ 講會于鹿峯. [註] 在漆谷 建甌山下. ○ 時, 石潭 李茂伯潤雨 浣石亭 李君顯彦英 克明堂 張正甫乃範 李興雨, 皆從之. ○ 李茂伯, 於先生, 爲妻從姪, 而自髻鬢, 從先生遊, 講摩質疑, 多蒙獎許焉.”

위의 글은 원문과 註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옮긴 것이다. 손처눌은 17세에 칠곡의 上枝里에 거주하고 있던 松巖 李遠慶(? ~1571)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다. 이원경은 석담의 종조부이다. 이윤우는 손처눌이 광주이씨와 혼인한 해에 출생하여 모당에게 가서 공부하였는데, 위의 글에 나오는 이희복은 이윤우의 부친이고 이심해, 이심민은 이원경의 아들로 이윤우의 종숙이다.

위의 글에는 이윤우가 처종질로 ‘이를 갈 무렵부터 선생을 따라 배우고 강론 질의하여 장려와 허여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이를 갈 나이라고 하는 것은 석담의 연보에 처음으로 공부하였다고 하는 8세가 이 나이에 해당한다. 석담은 <모당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조카[姪]라고 하고 모당을 스승[師]으로 칭하고 있다.<sup>5)</sup> 녹봉에는 精舍가 있었는데 이정사는 퇴계의 문인인 錦溪 黃俊良(1517~1563)이 성주 목사로 재임하고 있던 1561년(명종 16, 辛酉)에 건립한 것이다. 석담의 연보는 그의 7대손 默軒 李萬運(1736~?)이 작성하였는데, 이 연보에는 이윤우가 모당에게 공부한 것이 누락되어 있다. 이만운이 연보를 작성할 때에는 이윤우가 타계한 지 150여 년이 경과한 시기로 당시에 이 사실이 전하지 아니하였는지, 아니면 한강의 명성으로 인하여 기록하지 아니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위 <모당연보>에는 이윤우가 모당에게 와서 공부한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석담연보>에는 11세에 조모가 타계하였으며 17세(1585)에는 녹봉정사에서 공부[讀書]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이윤우는 20여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고향과 모당의 강학소를 오가며 학문을 익혔던 것을 알 수 있다.

5) 손처눌, 『모당집』, 권9 附 師友書牘, <石潭李公書(3번째와 4번째 편지)>.

이윤우는 21세(1589)에 한강에게 수업을 청하였는데 한강에게 수업을 청한 후에도 모당에게 지속적으로 출입하였다. 23세(1591)에는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이듬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양친을 모시고 팔공산으로 피난을 하였는데 난중에 모친께서 타계하였다. 32세(1600)에 부친상을 당하였으며, 喪期를 마치고 34세(선조 35, 1602) 10월에는 손처눌의 永慕堂으로 와서 『주역』을 공부하였다. <모당연보>에는 『모당일기』의 내용을 附記하고 있는데 “일기에 이르기를 上舍 이무백이 와서 머물면서 『주역』의 의심나는 것을 묻는데, 소견이 정미함이 많아 심히 敬愛할만 하다.”<sup>6)</sup> 라고 하였다. 영모당은 임진란이 종결된 2년 후 손처눌의 나이 48세(1600)에 선친의 묘소가 있는 황청동(지금의 황금동) 산하에 건립한 강학소이다.

손처눌은 1617년(광해군 9, 丁巳) 3월에 泗上으로 한강을 찾아 문병하였는데, 이때 이윤우(49세)가 사상으로 와서 손처눌에게 上枝의 修契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의 일을 모당의 <遺事>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정사년(1617)에 (모당께서) 泗水(泗上)에 가서 정선생(한강)의 병을 간호하였는데, 당시에 石潭 李公(윤우)이 선생(모당)을 위해 上枝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와서 청하여 행차를 맞이했는데, 정선생이 말하기를 “茂伯이 幾道(손처눌의 字)를 초대하고 기도가 무백에게 가는 것은 참으로 좋은 모임인데, 내가 병으로 그 사이에 몸을 둘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라고 하였다. 李公은 선생(모당)에게 內從姪인데 어릴 때부터 선생을 따라 학문을 강론했다. 일찍이 한양으로 올라갈 때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금호강가의 畫巖 아

6) 손처눌, 『모당집』, 권6 부록, <연보 50세>.

래서 다시 德範을 받들고 朱子書를 토론할 날이 멀지 않음을 알겠습니다. 티끌 묻은 세속의 모습이라고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으니 그 從遊의 즐거움과 愛慕의 마음을 알만하다.<sup>7)</sup>

위의 글은 모당의 재종질 孫湍(1626~1713)이 지은 것이다. 손단은 聞灘 孫澹(1566~1628)의 손자로 모당의 재종질이다. 문과에 합격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이 글을 쓸 때에는 고성현령 겸 춘추관 기주관으로 있었다. 이때 이윤우는 49세(1617)로 鏡城判官의 임기를 마치고(1613년 9월 除授, 11월 부임~1616년 5월) 고향으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위의 글에서 인용한 이윤우의 편지는 『석담문집』(첫 번째 편지)에도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일찍이 한양으로 올라갈 때’라고 한 말은 문과에 합격하여 처음으로 관직에 나아갈 때를 말한다.

또 ‘금호강 가의 畫巖 아래서 다시 德範을 받들고 朱子書를 토론할 날이 멀지 않음을 알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화암은 研經書院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윤우는 손처놀이 주도하였던 연경서원의 강학에 참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윤우가 孫澹이 타계(1628년, 이윤우 60세) 하였을 때 한 挽詞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윤우가 손린에게 한 만사는 다음과 같다.

研經院裏連狀讀 연경서원에서 책상을 나란히 하여 독서하였고  
泮水村中對榻論 반궁(성균관)에서 책상을 대하고 논하였네.

7) 손처놀이, 국역 『모당집』, 권8 부록, <遺事>, 정헌교 역, 청호서원, 2001, 374쪽. “丁巳往泗上, 侍護鄭先生病, 時石潭李公爲先生設酌, 來邀上枝之行, 鄭先生曰 茂伯之招幾道, 幾道之赴茂伯, 誠好會也, 恨余病不能致身於其間云. 李公於先生爲內從姪, 而自少從先生講學. 曾於上洛時, 爲書於先生曰 琴湖之邊畫巖之下, 更奉德範討論朱書, 知在不遠. 幸勿以塵容俗狀而拒之也云. 其從遊之樂, 愛慕之心, 可得以知也.”

一榜登科歸故里 과거에 합격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同時鳴珮入修門 함께珮를 울리며 집으로 들어갔네.  
 憐君孤直難容世 가련한 임금께서 홀로 바르니 세상이 수용하기 어려워  
 愧我凡庸久竊恩 나의 평범한 자질이 부끄러운데 오랫동안 임금님의 은혜를  
 晚歲交遊期莫逆 만년에 사귀어 막역하였는데  
 自聞凶訃獨傷魂 고향으로부터訃音이 도착하니 홀로 마음이 상하네.<sup>8)</sup>

이때 이윤우는 한양에서 시장원 輔德으로 있었는데 문과의 同榜이자 향리의 友人이었던 손린의 타계 소식을 듣고 만사를 지어 보내었다. 이윤우가 연경서원에서 공부한 시기는 그가 문과에 합격하기 이전인 1602년(선조 35, 34세)에서 1606년(선조 39, 38세) 사이로 보인다. 또 이윤우는 같은 해인 1617년(49세) 6월 25일에 영모당에서 모당의 65세 생신일에 酬酌(잔치)을 베풀기도 하였다.<sup>9)</sup>

이윤우는 51세(광해군 11, 1619) 2월에 巡檢使 權盼(1564~1631)의 종사관으로 호남에 갔을 때 손처눌에게 인쇄된 禮經 1부를 보내었다.<sup>10)</sup> 이듬해 52세 8월에는 모당으로부터 出處에 관한 편지를 받았다. 이때 정인홍의 무리들이 극성하여 어진인들이 다 물러났는데 이윤우가 大同察訪에 제수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만 둘 것을 권유하는 편지였다. 이때 이윤우는 모당에게 “선생님과 벗들에게 부끄럽거나 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sup>11)</sup> 라고 답하였다. 이 편지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때 이윤우는 대

8) 孫遜, 『聞灘集』, 권4 부록, <挽詞(李潤雨)>.

9) 손처눌, 『모당집』, 권7 부록, <연보 65세>.

10) 『석담문집(연보)』에는 50세인 1618년 겨울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11) 손처눌, 『모당집』, 권9 부록, <石潭李公書(4번째 편지)>. “庶不爲師友之所羞辱矣.”



동찰방에 취임하지 아니하였다.

이운우는 담양부사로 있던 61세(인조 6, 1628) 11월에 한강이 저술한 禮說(『五先生禮說』)과 『五服沿革圖』를 간행하여 손처눌에게 보내었다.<sup>12)</sup> 그 외에 이운우는 樂齋 徐思遠(1550~1615)의 문하에도 평생 출입하였는데 연보에는 32세(1600) 이후부터 나타나므로<sup>13)</sup> 이 논문의 주제인 그가 어릴 때 학업을 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운우는 손처눌이 타계한(1634. 6. 15, 82세) 한 달 뒤 7월에 병으로 누워<sup>14)</sup> 1634년 윤 8월 9일(66세)에 타계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이운우는 낙재 서사원과 槐軒 郭再謙(1547~1615), 寒岡 鄭述(1547~1620)와는 달리 손처눌에게는 挽詞나 祭文을 남기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운우는 어릴 때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모당 손처눌의 문하에 출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한강에게 집지하기 이전인 10여 년간 종고모부인 모당에게 공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한강 정구

이운우가 寒岡 鄭述(1543~1620)에게 수업을 청한 것은 21세(선조 22, 1589) 때이다. 한강 역시 이운우에게는 인척이 된다. 한강의 이모는 이운우의 종조모이다.<sup>15)</sup> 대구의 해안에 살았던 柳時藩(1569~1640)은 1587년

12) 손처눌, 『모당집』, 권7 부록, <연보 76세>.

13) 徐思遠, 『樂齋年譜』, <연보 51세>.

14) 김세림이 쓴 이운우의 묘지명에 의하면 이운우는 1632년(壬申) 3월에 風痺를 입었다고 하였다.

15) 鄭述, 『寒岡集』, 권12 祭文, <祭李松巖文 辛未(1571)>.

(선조 20) 19세에 “회연으로 가서 한강을 찾아뵈었는데 이때 이윤우, 蔡夢硯(1561~1638)과 함께 경전[經義]을 강학 받았다.”<sup>16)</sup>고 하였다. 류시번은 이윤우와 동갑이다. 이것으로 보아 이윤우는 21세 이전에 이미 한강의 門下에 출입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윤우의 연보에는 한강에게 수학하였을 때 『주역』을 배웠다고 하였다. 그런데 학업의 과정에 대한 한강의 가르침을 받고 『소학』부터 다시 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한강이 제시한 학업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선생(석담)은 少時에 한강선생을 좇아 처음에 『周易』을 배웠다. 정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이 책(주역)은 초학자에게는 급무가 아니다. 학문을 하는 요체는 마땅히 『소학』에서 공(효과)을 거두고, 그런 연후에 四書, 『心經』, 『近思錄』, 『朱子書』를 차례로 공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sup>17)</sup>

위의 글은 한강이 제시하고 있는 공부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이윤우가 처음에 한강에게 『주역』을 배웠다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이전에 四書 등의 경전을 공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윤우는 23세(선조 24, 1591)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38세(1606)에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그러나 1610년(광해군 2)에 史官으로 있으면서 鄭仁弘의 잘못을 기록하였다가 탄핵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나고향으로 돌아왔다.

44세(광해군 4, 1612) 정월에 한강이 노곡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한강이 사는 곳이 정인홍이 사는 곳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때의 일을 손

16) 柳時藩, 『沙月堂集』 <연보 19세>.

17) 이윤우, 『석담문집(연보)』, <연보 21세>.

처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임자년(1612) 정월에 선생이 蘆谷으로 거처를 옮겨 장차 精舍를 지을 예정이었다. 이에 表仲夫, 李以直, 張德優(顯道)는 제반 진행을 담당하였고 宋學懋(遠器), 李君顯(彦英), 李茂伯(潤雨) 등 몇 사람은 서로 분담하여 집을 지었다. 康節(邵雍)이 낙양에 들어갔을 때 낙양 사람들이 그가 살 집을 사주기도 하고 새로 지어주기도 하였는데 곧 이와 같은 의미일 것이다.<sup>18)</sup>

위의 글에 의하면 한강이 노곡으로 이사할 때 이윤우를 비롯한 문인들이 거처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운 것을 알 수 있다.

이윤우는 동년 5월에 輸城察訪으로 나아갔는데 한강계 出處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듬해 1613년(광해군 5) 여름에 탄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한 달 후 9월에 鏡城判官에 임명되어 10월에 부임하였다. 수성은 오늘날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동에 있었던驛이고 경성부 역시 함경북도 경성군 지역으로 수성과 이웃하고 있는 곳이다. 이것은 정인홍의 무리들이 이윤우가 조정에 있는 것을 싫어하여 멀리 외방으로 내쳤던 것이다. 이윤우는 48세(광해군 8, 1616) 5월에 경성판관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후 7년간 관직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동년 6월에 泗上으로 가 한강을 찾아뵙고 머물며 강학하였다. 1617년(광해군 7) 7월에 한강이 동래온천[蓬山浴行]에 갈 때 동행하여 9월에 돌아왔다.

51세(광해군 11, 1619) 5월에는 사상으로 가서 한강의 『五先生禮說』의 저술을 도왔다. 한강께서는 1614년(광해군 6) 노곡에서 사수로 거처를

18) 정구, 국역 『한강집』4, 「한강언행록」 <제3권 유편, 雜記, 손치눌 기록>, 송기채 옮김, 민족문화추진회, 2004, 283쪽.

웁긴 후 이해 여름부터 불타다 남은 것을 수습하여 다시 『오선생예설』을 편찬하였다. 이운우가 경성판관으로 있을 때 한강은 이운우의 편지를 받고 다음과 같은 답서를 보내었다.

돌아온 그대 아들 편에 삼가 편지를 받아보고 무더운 요즘 정무를 수행하는 근황이 두루 평안함을 알았으니, 감격스럽고 위안되는 심정을 어찌 이루 형언할 수 있겠는가? 나는 관절통이 날이 갈수록 고질화되어 가고 원기는 약간 좋아진 것 같으나 손발 한쪽이 마르는 증세가 자꾸 더 심해지고 있네. 설사 다행히 목숨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장차 문을 닫고 들어앉아 몸쓸 병을 앓는 폐인이 되고 말 처지이니 정말 한탄스럽다네. 지금 徐丈과 宋丈 두 어른을 잃었으니 이제 외로운 이 몸이 이 세상에 누구와 서로 어울리겠는가? 이 점 또한 서글픔이 사무치네.

『五先生禮說』은 아직도 그 공정을 끝맺지 못하고 있네. 혹시 우리 그대의 손길을 기다리느라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

新舊의 수령이 교체하는 시기가 아마도 이번 초가을을 넘지 않을 듯하니 우리가 한 자리에 만나 차분히 대화를 나눌 때는 분명 날씨가 서늘해진 8월 경이 되지 않겠는가? 그때를 손꼽아 기다리겠네. 그런데 정식으로 교체되기 이전에 미리 사직하고 물러나는 일은 사리 상 혹 온당치 못한 점이 있을 듯하니, 부디 잘 헤아려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대 아들이 아무 탈 없이 돌아와 매우 위안이 되고 기쁘네. 나의 병석에는 간호하는 子弟가 따로 없어 뻗뻗이 누워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 아들도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과연 제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간혹 찾아와 머물러 있으면서 간호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난번 나를 찾아왔을 때 그대의 편지를 꺼내 보여주고 그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자, 그도 상당히 마음에 두고 귀담아 듣는 것 같았네.<sup>19)</sup>

19) 정구, 국역 『한강집(속집)』3, 제2권 書, <이무백 운우에게 답함>, 송기채 옮김, 민족문화추진회, 2003, 39-40쪽.

위의 글에서 한강의 만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徐丈과 宋丈 두 어른을 잃었다.’고 하였는데 徐丈은 서사원을 말하고 宋丈은 송원기이다. 그리고 병을 무릅쓰고 『五先生禮說』을 편찬하면서 이윤우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윤우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함께 논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윤우는 그의 아들에게 한강의 간호를 돕도록 당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56세(인조 1, 1623) 3월 청명일에 上枝에 있는 石潭에서 遊하고 인하여 自號로 삼았다. <청명일 석담에서 遊하다>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六載重尋舊石臺 6년만에 다시 옛날의 石臺를 찾으니  
 釣磯埋沒長莓苔 낚시터는 매몰되고 길게 이끼만이 끼어있네.  
 百年安得身康健 백 년 동안 어찌 몸의 강건함을 얻을까?  
 花柳芳辰數往來 꽃과 버들이 아름다울 때 자주 왕래하네.<sup>20)</sup>

위의 시에 언급하고 있는 석담은 이윤우의 집안이 세거하였던 칠곡의 상지에 있었던 넓은 바위인 石臺임을 알 수 있다.

60세(인조 6, 1628) 2월에 담양부사로 부임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한강이 저술한 『五先生禮說』과 『五服沿革圖』를 간행하였다. 五先生은 송나라 성리학자 程顥, 程頤, 司馬光, 張載, 朱熹를 말한다. 이듬해 6월에 지은 『오선생예설』의 발문에서 이윤우는 “우리 선생의 일생의 정력이 다 이 책에 있다.[吾先生一生精力, 盡在於此.]”라고 하고, “갑자년(인조 2, 1624) 間에 경연에서 임금님께 이 책을 간행하지 않을 수 없는 뜻을 啓達하였는데 임금님께서 초기에 변란을 겪어 물력이 탕진되어 잠시 후일을 기다리

20) 이윤우, 『石潭文集』, 권1 詩, <清明遊石潭>.

자고 교시하였다. 그래서 물러나와 상자 속에 넣어두고 감히 내 놓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또 “그는 이 책을 처음에 전라도 관찰사 李聖求와 더불어 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성구가 부모님의 병으로 갑자기 교체되어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 후에 나주목사 辛啓榮, 광산현감 李惟達, 순천현감 姜大進, 무안현감 金輳와 협의하여 나누어 판각하였는데 전라도 관찰사 權泰一 또한 후원하여 수개월 만에 완성하였다.”<sup>21)</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복연혁도』는 “정사년(1617) 한강이 동래온천에 가셨을 때 목욕을 하신 여가에 『儀禮五服圖』를 조금 수정하여 역대 제도의 연혁을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윤우에게 필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오선생예설』을 판각하고 남은 재력으로 이 圖를 간행하였다.”고 하였다.<sup>22)</sup>

이것으로 보아 이윤우는 한강의 문인으로 한강을 宣揚하는데 정성을 다한 것을 알 수 있다.

### 3. 석담의 율곡 문인설의 訛傳과 오류

#### 1) 박세채가 ‘어릴 때 들은 바를 기록하다’라는 글의 와전

석담 이윤우(1569~1634)가 율곡 이이(1536~1584)의 문인이었다는 주장은 南溪 朴世采(1631~1695 ; 인조 9~숙종 21)가 ‘어릴 때 들은 바를 기록하다.[記少時所聞]’라는 기사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박세채는 이 기사에서 그가 어릴 때 內兄(외사촌)인 申昶(1613~1653, 字는 用晦)에게 들

21) 이윤우, 『석담문집』, 권3 跋, <五先生禮說跋>.

22) 이윤우, 『석담문집』, 위와 같은 곳.

었다는 말을 다음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

申兄用晦가 말하기를 “李公 潤雨는 율곡의 문인이다. 가장 오래 수학하였다. 선생(율곡)이 돌아가심에 미처 또한 가서 寒岡公을 섬겼다.” 후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당시에 선생을 모시고 있을 때에 춘풍이 집에 들어오는 것 같아 능히 하루라도 그 곁을 떠날 수 없었는데 내가 또한 스스로 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다. 비록 어리석고 몽매한 무리들이라도 한번 안색을 대하면 진실로 기뻐하여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말하기를 “한강은 율곡을 매우 공경하여 사모하고 좋아함이 알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白沙 李公(이항복)이 지은 율곡의 비문을 보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문장은 매우 좋으나 叔獻(율곡의 字)의 학문을 형용함에 어찌 이와 같이 평범함[凡率]이 심한가?”<sup>23)</sup>

위의 글을 살펴보면 ‘이운우가 율곡의 문인 중에서 수학한 기간이 가장 길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율곡과 이운우의 생졸을 비교해보면 율곡이 타계하였을 때 이운우는 16세였다. 이운우의 연보에 의하면 이운우는 8세에 처음으로 학업을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11세에는 조모께서 타계하였는데 그렇다면 13세까지는 조모의 喪期로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수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운우가 율곡에게 가서 공부를 하였다면 그 기간은 길어야 5, 6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율곡의 많은 高弟子가 있는데 율곡이 타계하였을 때 겨우 16세인 이운우가 가장 오래 수학하였다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는 語不成說이다.

23) 朴世采, 『南溪集(正集)』, 권57 雜著(記事), <記少時所聞>. “申兄用晦言, 李公潤雨栗谷門人也. 受學最久. 及先生歿, 又去事寒岡公. 後謂人曰, 當陪侍先生時, 如入春風之室, 不能一日而離其座, 余亦自不知其何也. 雖愚蒙之輩, 一承顏色, 莫不誠悅而心服焉. 又曰寒岡大敬栗谷, 慕好不淺. 嘗見白沙李公所撰栗谷碑文, 歎曰, 儘是好文章, 第形容叔獻之學, 豈可如是凡率之甚乎.”

더구나 이윤우가 어릴 때부터 손처닐에게 공부하였다는 것이 『모당집』에 기록되어 있고, 모당의 학문과 인척관계 등을 고려해볼 때 『모당집』의 기록은 믿을 수 있다. 또 이윤우가 어린 나이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황해도 해주에 홀로 가서 율곡에게 공부하였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이윤우는 38세에 문과에 합격하기 이전에는 과거를 보기 위하여 한양에 간 일과 성균관에 가서 공부를 한 시기(35세)<sup>24)</sup> 이외에는 향리를 떠난 적이 없다.

또 한강이 율곡을 존중하였다는 것은 당시에 성현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말이다. 율곡 역시 학설은 다르나 퇴계의 인격과 학문을 흠모하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오류는 이윤우가 그의 스승인 한강의 신도비명을 신경의 조부인 象村 申欽(1566~1628)에게 청한데서 부터 비롯되었다. 이윤우가 한양에서 관직에 종사하고 있던 1625년(인조 3)에 동문들은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상촌 신희에게 한강의 신도비문을 청하게 하였다. 동문의 요청을 받은 이윤우는 여현 장현광이 지은 行狀을 가지고 신희를 방문하여 신도비문을 청하였다.<sup>25)</sup> 이윤우는 이듬해 1626년(인조 4)에 신도비문의 개정을 위하여 다시 신희를 방문하였다.<sup>26)</sup>

신희는 영남 출신이 아니나 영남지역 특히 대구지역과 인연이 깊은 분이다. 그는 경상도 관찰사로 있던 장절공의 외손<sup>27)</sup> 柳永詢의 청으로 1607년(선조 40)에 대구의 북쪽 팔공산 山下 있는 表忠祠의 壯節公 申崇謙

24) 이윤우, 『석담문집(연보)』, <연보 35세>.

25) 이윤우, 『석담문집(연보)』, <연보 56세>.

26) 이윤우, 『석담문집(연보)』, <연보 57세>.

27) 이때 외손은 장절공의 후예의 외손을 말한다.



장군의 비문을 지었으며<sup>28)</sup>, 그의 아들 東陽尉 申翊聖(1588~1644)은 장절공에 대한 찬시<sup>29)</sup>를 지었다.

또 신흠은 <蔡少監公의 墓碣>을 지었는데 이것은 投巖 蔡夢硯(1561~1638)으로 인한 것이었다. 채소감은 蔡泳으로 조선 초 軍資少監을 역임하였다. 고려 말 두문동 72현의 한분인 多義堂 蔡貴河의 장자이다. 이 비문을 지은 연유를 소감공의 비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觀察使 姜公이 영남에서 돌아와 나 欽에게 말하기를 “대구부의 북쪽에 채소감의 묘가 있는데, 이는 우리 선대의 외가이고 또한 공의 외가이기도 합니다. 소감공의 7대손 夢硯씨는 능히 조상의 근본을 생각하고 비석으로 영원히 전할 계획을 하니, 옛사람이 이른바 ‘仁人·君子는 그 조상을 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欽이 다 듣고 나서 탄식과 敬服을 그치지 않았고 또한 친히 성묘하지 못함을 스스로 탄식하였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몽연씨가 그 보첩을 기술하여 와서 나에게 청하기를 “우리 소감공을 장사지낸 지가 근 백년이 되었습니다. 무덤 주위가 풀로 뒤 덮혀서 거의 나무꾼과 목동의 출입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그 사적을 상세히 아는 자손이 없어서 부인을 합장하였는지도 이장하였는지도 상고할 수 없습니다. 姜 觀察使公이 이곳에 부임함에 힘입어 봉분도 쌓고 나무도 심으니 묘역이 일신되었습니다. 또 재물을 내어놓고 저로 하여금 돌에 새겨서 소감공의 그윽한 행적을 기록하게 하였는데 묘소에 이르는 길에 세울 비석의 글을 그대가 맡아주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꿇어 앉아 받으며 말하기를 “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대 채공께서 효도에 정성을 다하시고 강관찰이 조상을 추모함에 돈독한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두 분께서 저의 변변치 못한 글로써 선대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어 그 빛을 영원히 전하게

28) 국역 『大丘邑誌』, 김택규·박대현 역, 「碑板」, <表忠祠>, 대구광역시, 1997, 267-270쪽.

29) 국역 『大丘邑誌』, 「題詠」, <表忠祠>, 217쪽.

하니 저 또한 행복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삼가 살펴보니 공의 諱는 泳이고 字는 某이니 인천인이다. ... 30)

위의 글은 신흘이 대구지역, 특히 인천 채씨 문중과 깊은 인연(관계)을 맺게 된 연유를 알 수 있는 글이다. 위의 글에 ‘觀察使 姜公’은 姜籤(1559~1611)이다. 그는 1609년(광해군 1) 5월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1610년 윤3월 이임)하였는데, 동년 10월 20일에 無怠의 道谷으로 가서 채몽연 7대조인 軍資少監 蔡泳의 묘소에 참배하였다. 강침이 채영의 묘소에 성묘한 것은 그가 소감공의 8대 외손이었기 때문이다. 강침은 채영의 묘소에 성묘하고 연경서원을 방문하여 孫處訥(1553~1634)과 孫處約(1556~?) 형제 등을 만나고 저녁이 되어서 감영으로 돌아갔다.<sup>31)</sup>

한강의 문인인 채몽연, 손린, 배상룡<sup>32)</sup> 등이 이윤우에게 편지하여 상촌 신흘에게 한강의 신도비문을 청하게 한 것은 신흘과 대구지역과의 이러한 인연이 크게 작용하였다. 물론 상촌의 관직과 상촌이 西人이기는 하나 크게 파당에 관여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윤우가 신흘을 2차례 방문하였을 때 신경은 13, 14세였다. 그러므로 신경이 박세체에게 전한 말은 그가 이윤우에게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 그의 조부에게 전해 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조부는 그가 16세

30) 국역 『大丘邑誌』, 「碑版」, <蔡少監 墓碣>, 274-275쪽 ; 申欽, 『象村稿』, 권25 墓碣銘, <朝奉大夫 軍資少監 蔡公 墓碣銘>.

31) 具本旭, 「팔공산과 금호강을 왕래하며 강학한 松潭 蔡應麟」, 『조선사 연구』21집, 조선사연구회, 2012, 29쪽.

32) 손린, 『문탄집』, <연보 61세(1626년 9월)>. “石潭李公寄送, 象村申相公 欽 所撰鄭先生神道碑文章.” ; 裴尙龍, 『藤庵集』, <연보 54세(1627년 冬)>. “致書于李石潭 潤雨, 請神道碑銘於申象村 欽.” 석담의 연보와는 1, 2년의 차이가 있다.

(1628) 때 타계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신경이 박세채에게 이야기를 전하였다면 박세채의 생년(1631)과 신경의 졸년(1653)을 고려할 때 이운우가 한강의 신도비문을 청한 15~20여년 후가 된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授受하였다는 말은 신뢰하기 힘든 것을 알 수 있다.

## 2) 한강이 율곡에게 답한 서간에 대한 박세채의 臆見

율곡 이이는 타계하기 1년 전인 1583년(선조 16) 10월 22일에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한강과 牛溪 成渾(1535~1598) 등을 천거하였다. 그리고 율곡은 친히 한강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율곡이 한강에게 보낸 편지는 『율곡전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데, 한강이 율곡에게 답한 편지는 『한강선생 속집』권2에 <答李叔獻 珣>라는 題下에 수록되어 있다.

박세채는 <한강이 율곡에게 답한 편지>가 있다는 것을 1673년(현종 14) 그의 나이 43세 가을에 海院(해주에 있는 서원)에 갔을 때 李懷德 耘에게 듣고 그 從孫의 생질 吳遂昌을 통하여 얻어 보게 되었다<sup>33)</sup>고 한다. 『한강집』에는 한강이 율곡에게 보낸 답서의 날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박세채의 <跋寒岡先生甲申手帖>에 의하면 1584년(선조 17, 갑신) 정월 19일이라고 하였다. 이때에는 율곡이 이미 타계한(정월 16일) 뒤여서 율곡은 이 편지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먼저 <한강이 율곡에게 답한 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前略) 지난해 존형께서 서쪽의 고향으로 돌아가심에 시론이 크게 시끄러웠습니다. 다시 부르심을 받고 조정에 돌아와서 牛溪(성혼) 형과 함께 이조

33) 박세채, 『남계집(정집)』, 권38 題跋, <跋寒岡先生甲申手帖>.

[天官]에서 근무하신다고 하니 물고기가 물을 만난 기쁨으로 함께 협의하는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니 실로 천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기회입니다. 평생 강론하신 바가 지금 또한 헛되지 않고 크게 화합하는 가운데 한 시대를 교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로와 하례를 드리며 기대하는 바가 어찌 다른 사람의 뒤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구하게 서로 아끼는 마음에 오히려 용납하지 못할 바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시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컨대 吾兄의 몸은 밝으신 임금님의 응승한 대우로 인하여 자신의 몸에 부과된 중책을 생각하시어 顔子의 견줄 수 없는 도량처럼 깊고 넓게 하시고, 孟氏(맹자)의 ‘자신에게 돌이켜 구하라.’<sup>34)</sup>라는 뜻을 힘써 보존하십시오. 是非를 공론에 부치고, 彼此間에 東·西를 잊어 텅 빈 마음으로 보아 숨기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權度의 쓰임을 살펴서 그 마땅함을 다 하십시오. 옛 사람이 왕을 보좌한 道가 아니면 마음속에 두지 마십시오. 옛 임금의 도가 아니면 임금님 앞에서 진술하지 마십시오. 또 마음을 잡고 살핀 공을 더욱 이루어 조심하고 경계하는 뜻을 두어 혹 잠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여금 이 마음의 體用이 밝고 통하고 공정하고 넓어서 치우침이 없다면 그 酬酢하는 즈음에 스스로 마땅히 中正하고 화평하여 인심이 다 복종할 것이고, 나라가 이에 저절로 안정되어 德義와 功業이 다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백세의 군자를 기다릴지라도 또한 의혹이 없을 것인데 하물며 한때의 是非임에라. 저절로 그 진실이 나타날 것이니 마땅히 천리의 공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찌 서로 합일되지 않음을 근심하겠습니까? 크게 어리석고 참람하고 경솔하게 망령되어 좁은 소견을 올렸습니다. 생각건대 오직 넓은 도량으로 용서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述]는 일찍이 외람되게 召命을 받고도 병으로 능히 나아가지 못하여 신하의 공손함을 크게 잃었습니다. 조심스럽고 근심이 되어 오랫동안 편치 못하였습니다. 초야의 어리석고 미천한 신하가 임금의 부름을 한번 그릇되게

34) 『맹자』, 권3 公孫丑(上), 7장. “孟子曰, … 仁者如射, 射者正己而後發. 發而不中, 不怨勝己者, 反求諸己而已矣.”; 권7 離婁(上), 4장, “孟子曰, 愛人不親反其仁, 治人不治反其智, 禮人不答反其敬. 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 其身正而天下歸之.”

하여 이미 불편한데 어찌 다시 다른 근심을 두어 이에 敎書를 보고 사양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심히 괴이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존형께서는 본래 제가 병으로 폐인이 되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니 마땅히 가련히 살피주시리라 여겨집니다.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함은 천만 부당하니 위로는 公朝에 선발해서 사람을 쓰는 것을 어기고 아래로는 匹夫가 잃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양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찌 힘들게 간곡히 청하겠습니까? 나머지는 엎드려 나라의 순리를 기원하며 自重과 加護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펴지 못하고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 갑신 정월 십구일. 速 再拜.<sup>35)</sup>

위 글은 율곡이 한강으로 하여금 조정에 출사하도록 권유하는 편지에 한강이 답한 것이다. 위의 글에서 한강은 ‘자신의 몸에 부과된 중책을 생각하시어 顏子의 견줄 수 없는 도량처럼 깊고 넓게 하시고, 孟氏(맹자)의 자신에게 돌이켜 구하라라는 뜻을 힘써 보존하십시오. 是非를 공론에 부치고, 彼此間에 東·西를 잊어 텅 빈 마음으로 보아 숨기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에 비추어 볼 때 한강은 이미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된 조정의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을 염려하여 공론에 따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동인과 서인이라는 의식이 있는 한 나라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조정에 출사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박세채는 한강의 답서에 대한 발문[跋寒岡先生甲申手帖]을 지었는데 이 발문에서 위 편지에 대하여 ‘麗澤道습’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택’이란 『주역』에서 유래된 말로 ‘서로 의견이 합치되는 것’을 말한다. ‘道습’은 율

35) 정구, 『한강집(속집)』, 권2 書, <答李叔獻 珥>; 박세채, 『남계집(정집)』, 권38 題跋, <跋寒岡先生甲申手帖>.

곡과 한강의 出處觀이 같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그 학설이 동일하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박세채의 臆見일 따름이다.

또 박세채는 발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첨언하고 있다.

한강은 율곡을 심히 공경하였다. 만년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더욱 그러하였다. 항상 後事로서 자신을 비유하였다. 그 비문이 한양으로부터 이름에 한강이 빨리 취하여 두세 번 읽어보고 펼쳐놓고 완미하며 천천히 말하기를 “叔獻의 도덕이 어찌 이와 같이 泛論으로 수용할 수 있을 따름이겠는가?”라고 하고 오래도록 명하니 있었다. 대개 李公(이윤우)이 처음에 首陽(해주)에서 이선생을 섬기고 후에 정선생에게 졸업하였다. 外王父(외조부) 상촌공에게 비문을 청할 때 자술함이 이와 같았다.<sup>36)</sup>

박세채는 위의 글에서 ‘寒岡의 栗谷後事論’을 말하고 있다. 또 이윤우가 首陽 즉 해수에 가서 율곡에게 공부하였다고 하였다. 이윤우가 해주에서 공부하였다는 말이 사실이 아님은 이미 앞에서 밝혔다. 또 위의 말에 대하여 이윤우가 상촌에게 자술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송시열의 다음과 같은 말은 박세채의 말이 虛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한강의 도통이 율곡에게 귀속된다.’고 말하는 것은 도덕이 어떠한지를 논하지 아니한 것이고, 時世의 선후가 倒錯됨이 매우 심하니, 이 설이 혹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되면 웃음거리가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sup>37)</sup>

36) 박세채, 『남계집(정집)』, 위와 같은 곳. “... 因記少時, 內兄平山申用晦爲余說, 故石潭李公潤雨之言曰, 寒岡甚敬栗谷. 晚歲猶然. 常以後事自擬. 及其碑文至自漢師, 寒岡亟取而讀之, 再三披玩, 徐曰叔獻道德, 豈容如是泛論已也, 愜然久之. 蓋李公始事李先生於首陽, 後從鄭先生卒業. 爲請碑文於外王父象村公, 其所自述如此.”

37) 김학수, 「석담 이윤우의 관직활동과 학문적 위상」, 『조선 후기 당쟁과 광주이씨』,

여기서 ‘도덕이 어떠한지 논하지 아니한 것이고’라고 말한 것은 학설이 같은지 다른지를 논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고, ‘時世의 선후가 倒錯됨이 심하다.’는 말은 율곡과 한강이 동시대인으로 한강의 율곡후사론은 성립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 4. 師友와의 交遊

##### 1) 향리에서의 교유

석담 이윤우는 38세에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는데 이미 당시에 형성된 당파로 인하여 그의 관직 수행은 순조롭지 못하였다. 그는 진사시에 합격한 15년 후 늦은 나이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따라서 그는 근 40여 년간 향리에서 활동한 유림이었다. 그가 향리에서 활동한 기간은 그가 관직에 있었던 기간에 비하면 더 긴 기간이다.

이윤우의 師友間的 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당 손치눌의 강학소인 永慕堂 講學과 낙재와 모당이 함께 하였던 研經書院 講學, 그리고 그의 장인의 강학소였던 狎鷺亭과 小有亭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어릴 때부터 慕堂家와 처가인 인천 채씨 집안을 출입하며 대구 지역의 많은 유림들과 교유하였다. 慕堂家에서 공부한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모당의 문인으로 高弟子에 해당하는 분으로는 이윤우를 비롯

---

지식산업사, 2011, 201쪽 재인용, 번역은 논자가 수정하였음 ; 송시열, 『송자대전』, 권102 書, <答沈德升 別紙>. “以寒岡道通歸之栗谷云者, 無論道德之如何, 以時世先後, 殊甚倒錯, 此說或掛他眼, 則恐不免見笑也.”

하여 聞灘 孫遜(1566~1628), 沙月堂 柳時蕃(1569~1640), 鳴溪 鄭好仁(1597~?), 洛陰 都彥俞(1579~1623) 등이 있다. 이윤우와 손린, 정호인은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갔고 도응유는 천거를 받아 관직에 나아갔다. 류시번과 정호인은 靑湖書院에 배양되었으며, 손린은 鳳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정호인은 영천사람으로 모당의 고모부인 湖叟 鄭世雅의 손자이다.

32세(선조 3, 1600) 8월에는 대구의 무태 금호강변의 洗心溪에서 苔巖 李輶(1556~1604), 槐軒 郭再謙, 成夏衍과 노닐며 각기 시 한 수를 지었다.<sup>38)</sup> 39세(1607) 2월에는 손린을 방문하여 馬淵巖에서 酒筵을 하며 시를 지었다.<sup>39)</sup> 43세(광해군 2, 1611) 7월에는 연경서원에서 五梅亭 孫處約(1556~?), 全歸堂 徐時立(1578~1665), 사월당 류시번 등 16명과 더불어 서사원에게 齋儀[齋戒와 儀式]에 대하여 강학을 받았다.<sup>40)</sup>

이윤우는 翰林으로 한양에 있을 때 모당에게 새달력[新曆]을 선물하였고<sup>41)</sup> 담양부사로 있던 61세(1629) 여름에는 류시번에게 부채를 보내기도 하였다.<sup>42)</sup> 그리고 養直堂 都聖俞(1571~1649), 東阜 徐思選(1579~1651)과 더불어 『대학』의 5장을 강의하기도 하였다.<sup>43)</sup> 도성유는 이윤우

38) 李輶, 『苔巖集』, 권3 부록, <연보 46세>.

39) 손린, 『문탄집』, 권1 시, <丁未 仲春 同年 李茂伯 來訪觴詠于馬淵巖>. 이윤우는 38세(1603) 12월에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이듬해 5월에 관직에 임명되었다.

40) 구본옥, 「연경서원의 경영과 조선 중기 대구지역의 유학」, 『퇴계학 논집』11호, 영남퇴계학회, 2012, 206쪽.

41) 손처눌, 『모당집』, 권1 시, <謝李翰林茂伯 寄新曆>.

42) 류시번, 『사월당집』, 권1 시, <謝李石潭茂伯 委札兼帶節簞 己巳>.

43) 都聖俞, 『養直文集』, 권1 시, <李茂伯 徐精甫兩兄 自查齋併臨精舍 留一日講大學第五章 因賦詩>.



가 경성판관으로 있던 1614년(광해군 6)에 꿈속에서 이윤우를 만나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林下黃鸝喚午眠 숲 아래 피꼬리가 낮잠을 깨우는데  
 故人來坐舊詩筵 옛 친구가 와서 옛날의 詩會 자리에 앉아있네.  
 北關此去幾千里 북관이 여기에서 수 천리나 먼데  
 東洛相分已一年 낙동강 동쪽에서 서로 이별한지 이미 1년이 되었네.  
 念我廚貧魚餽及 내가 가난한 줄 알고 물고기를 보내주니  
 徵君情厚鴈書傳 그대의 깊은 정이 아니면 기러기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으랴?  
 武城古有絃歌理 옛날 무성 땅에서 絃歌의 다스림이 있었는데<sup>44)</sup>  
 爲贈潭翁簿牒前 담옹(석담)의 官府 문서 앞에 이 말을 드리네.<sup>45)</sup>

위의 시는 천리 먼 곳에 가 있는 옛 친구를 꿈속에서 만나고 옛날 子游가 武城 땅에서 행한 絃歌 즉 善政을 베풀고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고향 벗의 애뜻한 정을 볼 수 있다.

또 이윤우는 그의 장인의 書齋였던 小有亭에 자주 들렀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한 관리들과 唱酬하기도 하였다. 그는 20세(1588)에 松潭 蔡應麟(1529~1584)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는데, 이때에 그의 장인은 이미 타계한 뒤였다. 채응린은 生員으로 조선 중기 대구유학의 세분 선생 중 한 분으로<sup>46)</sup> 당시에 향리에서 학행으로 명성이 자자하였다. 송담은 을사사화

44) 『논어』, 권17 陽貨, 4장에 나옴.

45) 도성유, 『양직문집』, 권1 시, <甲寅春 夢遇李茂伯(時李公宰鏡城)>.

46) 구본옥, 「팔공산과 금호강을 왕래하며 강학한 松潭 蔡應麟」, 『조선사 연구』21집, 조선사연구회, 2012, 51쪽.

로 인하여 과거에 응시하지 아니하고 향리에서 은거하며 생을 마친 분으로 낙재 서사원의 스승이기도 하다.

채응린은 1561년(명종 16)에 금호강 가에 狎鷺亭과 小有亭 2정자를 지어 강학하였는데, 이 정자는 대구뿐만이 아니라 영남 제1의 정자로 불리어졌다.<sup>47)</sup> 임진란으로 소실되어 그의 아들 琴灘 蔡先吉(1569~1646)과 兩傳軒 蔡先見(1574~1644) 형제들이 1609년(광해군 1)에 중건하였다.

이 정자는 많은 유림들이 방문하여 시를 읊고 唱酬하였는데 경상도 관찰사(순찰사) 11명, 대구부사 12명, 경상도 都事·從事官·御使·調度使 12명이 방문하기도 하였다. 1617년(광해군 6) 한강이 동래에서 온천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양, 반야(반야월)를 거쳐 9월 4일에 이 정자에 도착하여 점심을 들고 오후 늦게 泗上으로 돌아갔다.<sup>48)</sup>

이윤우는 1622년(광해군 14)에 <聘君 송담선생께서 소유정에 쓴 시 뒤에 공경히 쓰다.><sup>49)</sup>라는 글을 써서 이 정자의 건립과정과 전말을 기록하였다. 이윤우는 소유정에서 3수의 시를 지었는데 1수는 위의 기문을 쓸 때 지은 것으로 이 기문의 뒤에 첨부되어 있고<sup>50)</sup>, 나머지 2수는 1618년(광해군 10) 9월 9일 중앙절에 李如璜(1590~1632)<sup>51)</sup>이 종사관으로 한양에서 대구로 내려와 관찰사 朴慶新(1560~1626)과 함께 소유정을 방문하였을 때 지은 시이다.

47) 구본옥, 위의 논문, 3-4쪽.

48) 구본옥, 위의 논문, 42-48쪽.

49) 蔡應麟, 『松潭實紀』, 권3 부록, <敬書聘君松潭先生 題小有亭詩後> ; 이윤우, 『석담문집』, 권3 序, <小有亭重修 揭松潭蔡公詩序>.

50) 이윤우, 『석담문집』, 권1 시, <次小有亭韻>. “海外徒聞眞境在, 世間還有地仙家. 主人能繼先人志, 不厭賓朋日日過.”

51) 漢陰 李德馨의 次子이다. 이어황은 석담에게 族姪이 된다.

이때 관찰사 박경신은 <소유정에 적어 채처사가 입으로 읊조린 시에 답하여 주다.(題小有亭 還贈主人蔡處士 口號)<sup>52)</sup>>라는 題下에 3수의 시를 지었고, 이어황은 1수, 이운우는 2수를 지었다.<sup>53)</sup> 각 한 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巡察使 寒川 朴慶新<sup>54)</sup>]

琴壇溪上野翁家 금단의 강위에 야옹<sup>55)</sup>의 집이 있는데  
 宿昔聞之今始過 오래 전에 들었으나<sup>56)</sup> 오늘 비로소 방문하였네.  
 出郭已知鹿事少 성곽을 나오면서<sup>57)</sup> 이미 세상사와는 멀 것이라 여겼는데  
 憑闌方覺衆山多 난간에 의지하니 바야흐로 못 산이 많음을 깨닫겠네.  
 生憎翠壁森於玉 옥보다 더 푸른 산림 실증이 날 정도인데  
 不分晴川淨似羅 강에는 맑은 물이 이어지니 깨끗하기가 비단 같네.  
 此會那能客易別 오늘 모임 어찌 능히 객이라고 하여 쉽게 헤어질 수 있  
 겠는가?  
 任教微月映前沙 은은한 달빛이 임하여 정자 앞의 모래사장에 비치네.

[從事官 龍灘 李如璜]

形勝南州數子家 남주(영남)의 빼어난 곳에 몇 사람의 집이 있는데  
 良辰偷暇偶經過 좋은 때 여가를 내어 우연히 방문하였네.  
 清歌玉篴塵心斷 청아한 노래 가락과 피리소리에 세상사 끊어지고

52) ‘채처사’는 松潭 蔡應麟의 아들 蔡先吉이다. 口號는 입으로 읊조린 시.

53) 仁川蔡氏 美岱門中, 『小有亭 題詠錄』, 筆寫本.

54) 박경신은 청도의 밀양 박씨 『十四義士傳』에 나오는 朴慶新과는 同名異人이다.

55) 野翁은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를 지칭하는 말

56) 오래전에 들었다는 말은 ‘그 경치가 좋다는 말을 들었다.’는 의미임.

57) 성곽은 경상감영을 두르고 있는 大邱城을 말함.

白酒銀鱗野興多 백주<sup>58)</sup>를 물고기 안주하여 마시니 야흥<sup>59)</sup>이 일어나네.  
 珠箔捲時朝雨細 주렴을 걷으니 아침 이슬비 내리고  
 碧窓閒處暮山羅 푸른 창을 여니 저문 산이 비단과 같네.  
 重陽會遂相尋約 중양절에 서로 찾을 기약 이루니  
 花滿江阜月滿沙 꽃이 가득한 강 언덕에 달빛이 가득하네.

[前 察訪 李潤雨]<sup>60)</sup>

琴湖江上散人家 금호강 위에 산인<sup>61)</sup>의 집이 있는데  
 冠蓋翩翩此幾過 벼슬아치들이<sup>62)</sup> 이곳에 몇 사람이나 방문하였는가?  
 十里長郊芳草遠 십리의 긴 들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데  
 一秋寒雨暮烟多 가을의 차가운 비에 저문 안개 자욱하네.  
 笙歌只解酬佳節 좋은 계절 생황과 노래 소리에 술이 깨니  
 韋布何曾換綺羅 위포가 어찌 일찍이 비단으로 바뀌었는가?<sup>63)</sup>  
 最是知心鷗與鷺 물새와 해오라기가 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兩三時復下平沙 두서너 가락을 들을 제 다시 평평한 모래사장으로 내려  
 앉네.

위의 시에서 박경신은 소유정의 명성을 오래 전부터 들었으나 이제야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팔공산과 금호강이 어우러진 소유정의 勝景을 읊고 있다. 이여황 또한 중양절에 방문하게 된 것과 소유정 주변의 아름

---

58) 막걸리를 말함.  
 59) 흥이 많이 나는 모양.  
 60) 『석담문집』에는 위 시의 제목을 <小有亭次朴使相 慶新韻 再疊前韻>이라고 하였다.  
 61) 散人이란 강가 등에 흠어져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謙辭임.  
 62) 冠蓋(蓋)는 관과 수레의 덮개라는 의미로 벼슬아치들을 말함. 翩翩은 오가는 모양.  
 63) 韋布: 가죽 띠와 베. 벼슬하지 않는 선비. 여기서서는 낮은 관리인 이윤우가 고관(비단)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말한 것임.

다운 정경을 읊고 있다. 그리고 이윤우의 시에서 당시에 많은 관리들이 소유정을 방문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윤우는 향리에서 많은 유림들과 교유한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교유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모당과 한강의 문인이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또 그는 小有亭에서 관찰사를 비롯한 조정의 관리들과 唱酬하기도 하였다.

## 2) 관직 수행과 교유

이윤우의 관직 생활은 대북정권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45세(광해군 5, 1613)에 변방인 경성부의 판관으로 임명되어 부임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3년간 재임하면서 고향의 벗인 도성유가 고대한 바와 같이 善政을 베풀었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자 府民들이 鐵로 비석을 주조하여 세워 기렸다고 한다.

이석담 윤우가 경성판관이 되었다. 경성은 수 천리 떨어진 국경의 요새이다. 石巖(경성의 옛이름)의 옛터로 그 풍속이 잡되고 오랑캐와 가까워 더욱 다스리기가 어려웠다. 공이 정사를 펴며 정성과 善으로 마음을 미루어 다스렸다. 돌아옴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철로 주조하여 비석을 세워 추모하고 생각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sup>64)</sup>

경성은 변방으로 관리들이 이곳으로 가기를 꺼리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윤우는 ‘정성을 다하고 善으로

64) 정약용, 『與猶堂全書』, 第5集 政法集 第29卷○牧民心書, 권14 解官六條(遞代 歸裝 願留 乞有 隱卒 遺愛), <遺愛>.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府民을 다스렸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茶山 丁若鏞(1762~1836)의 『牧民心書』 <解官條·遺愛>에 수록되었던 것이다. <해관·유애>란 '벼슬을 그만두고 떠나도 잊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가 牧民官으로서 이러한 모범을 보였던 자세는 그의 아들에게 준 다음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석담 이윤우 선생이 성주에 거주하였는데, 아들 道長이 제천에 장가를 들었다. 어떤 사람이 제천에서 과거에 응시할 것을 권하자, 공은 이 말을 듣고 편지를 보내어 李君行의 말로써 증거를 삼아 경계하고, "과거는 사람이 發身하는 첫걸음이다. 너는 성주 사람인데 제천의 과거에 응시한다면 이는 志操를 잃고 군주를 속임에 가깝지 않겠는가? 선비는 마땅히 正道를 지켜야 하니, 비록 종신토록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운명이다."라고 하였다. 그 후 道長이 과거에 급제하여 서울에 있었는데, 공은 편지를 보내어 경계하기를 "새로 벼슬길에 오른 사람은 閨中の 處子와 똑 같으니, 어찌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新進이 있겠는가? 나와 절친한 벗이 현재 요직에 있으나 절대로 찾아보지 말라."하였다. 道長이 兵曹의 관원으로 임관되어 와서 문안을 드리자, 공은 경계하기를 "우리 집에서 내세울 만한 것은 清白뿐이니, 네가 만약에 네 아버지를 잘 봉양하려고 한다면 부디 의롭지 않은 물건으로 나를 더럽히지 말라." 라고 하였다.<sup>65)</sup>

위의 글은 『海東小學』에 수록되어 있다. 『해동소학』에서는 金世濂(1593~1646)의 『東溟集』에서 인용하고 있다. 위의 글에서 이윤우는 송나라 李潛(字는 君行)의 고사를 예로 들어 그의 아들을 깨우치고 있다. 이잠은 중국의 건주 출신으로 자제들이 개봉부에 호적을 올려 과거에 응시하려 하자 이는 군수를 섬기려고 하면서 먼저 군주를 속이는 행위라 하여 크

65) 『海東小學』, <善行 61>, 성백효 역, 전통문화연구회, 1996, 195-196쪽.

게 경계하였다. 위의 글에서 이윤우의 志操와 清廉을 볼 수 있다. 그는 그의 아들에게 “우리 집에서 내세울 만한 것은 清白뿐이니, 네가 만약에 네 아버지를 잘 봉양하려고 한다면 부디 의롭지 않은 물건으로 나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민관에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만년인 60세(인조 6, 1628)에 담양부사에 임명되었는데 이때 조정의 여러 관리들이 송별하는 시[驢章]를 지어 보내었다. 이윤우의 『석담집 실기』에는 이때 송별시를 보내온 관리 28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28인은 五峯 李好閔, 梅溪 陸鉞欽, 龍洲 趙綱, 蒼石 李垞, 灘翁 李紘, 星淵 崔蓍, 霞石 朴烜, 八松 尹煌, 黔澗 趙靖, 分沙 李聖求, 茶山 陸大欽, 東溪 權濤, 遲川 崔鳴吉, 潛谷 金埴, 谿谷 張維, 沙西 全湜, 龍溪 金止男, 翠軒 俞伯曾, 水北 金光炫, 石塘 李馨遠, 野塘 金南重, 玄谷 鄭百昌, 畸菴 鄭弘溟, 龜村 元錕, 白軒 李景奭, 趙元範, 觀海 李敏求, 敬亭 李民成으로 서인과 남인이 함께 섞여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윤우는 조정에서 당색에 구애됨이 없이 널리 교유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호민(1553~1634), 이준(1560~1635), 목서흙(1571~1652)이 지은 시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66)</sup>

當別不知傷別意 이별할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별하니 상심되고  
爲緣樽酒笑語多 한 술두루미 술에 인연하여 웃음과 말이 많도다.  
如今酒盡佳賓散 이제 술이 다할 것 같으면 아름다운 손들이 흩어지리니  
獨臥林齋對落花 홀로 숲속의 집에 누워 떨어지는 꽃을 대하리라.

少年分手易前期 소년시절 분수는 앞날을 기약하기 쉬웠는데

66) 이윤우, 『석담문집(연보)』, <驢章>.

此去那禁老淚揮 이곳 떠남을 막지 못하니 늙은이 눈물 흐르네.  
日暮獨登城上望 해가 저물자 홀로 성위에 올라 바라보노니  
靑山不盡白雲飛 청산은 다 하지 아니하고 흰 구름만 날리네.

宋玉先歸烏鵲城 송옥이 먼저 오작성(남원)으로 돌아가고  
正卿相繼福川行 正卿이 서로 이어 福川(화순)으로 행하였네.  
吾兄又赴羣仙會 吾兄이 또한 羣仙<sup>67)</sup>이 모이는 곳으로 달려가니  
從此湖中地勢傾 이를 쫓아 호남의 地勢가 기울겠네.

위의 시는 모두 이별을 아쉬워하는 서정시이다. 마지막 목서흠의 시에 “이를 쫓아 호남의 地勢가 기울겠네.”라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 당시에 조정에서 이윤우의 위상을 볼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석담 이윤우의 사승관계와 율곡 문인설의 訛傳과 오류, 師友와의 교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윤우는 두 분의 스승으로부터 공부를 하였는데 어릴 때에는 모당 손치놀이고, 21세 이후부터는 한강 정구이다. 그러나 한강에게 학업을 청한 이후에도 만년에 이르기까지 慕堂門下에 출입하였다. 그 외에 낙재 서사원에게도 평생 중유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윤우의 사승관계는 잘못 알려져 있었다. 이것은 박세채가 內從兄인 신경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기록한 <記少時所聞>에

---

67) 담양의 옛 이름으로 추측됨.



근거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 박세채는 ‘이윤우가 처음에는 율곡에게 학업을 하였는데 후에 한강을 섬겼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강이 율곡의 後事로 비유하였다.’라고 하는데 까지 비약되었다. 그러나 송시열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도 여기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윤우의 ‘초기 사승관계가 모당 손처놀이였다.’는 것을 모당의 문집과 일기 등을 토대로 밝힘으로써 박세채가 신경으로부터 듣고 기록하였다는 것이 허구임을 논증하였다. 따라서 한강의 ‘栗谷後事論’ 또한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윤우는 한강의 충실한 助力者로 한강의 최대의 力作인 『五先生禮說』을 간행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諡號와 신도비문을 청하는 등 한강을 宣揚하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본 논문의 의의는 이윤우의 사승관계를 명확히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鏡城判官으로 있을 때 이룩한 치적이 『牧民心書』에 실려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 또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경전 및 邑誌

『논어』.

『맹자』.

『海東小學』, 성백효 역, 전통문화연구회, 1996.

국역 『大丘邑誌』, 김택규·박대현 역, 대구광역시, 1997.

## 2. 문집

- 都聖俞, 『養直文集』, 1851.  
柳時藩, 『沙月堂集』, 1907.  
朴世采, 『南溪集(正集)』.  
裴尙龍, 『藤庵集』, 1859.  
徐思遠, 『樂齋年譜』, 1843.  
孫處訥, 『慕堂集』, 1849,  
孫處訥, 국역 『모당집』, 정현교 역, 청호서원, 2001.  
宋時烈, 『宋子大全』, 1787.  
申 欽, 『象村稿』, 1632.  
李潤雨, 『石潭文集』.  
李潤雨, 『石潭文集(年譜)』.  
李潤雨, 『石潭文集(實記)』.  
李 輶, 『苔巖集』, 1860.  
仁川蔡氏 美岱門中, 『小有亭 題詠錄』, 筆寫本.  
鄭 述, 『寒岡集』, 1926.  
鄭 述, 국역 『한강집』3,4, 송기채 옮김, 민족문화추진회, 2003.  
丁若鏞, 『與猶堂全書』, 1935.

## 3. 논문 및 단행본

- 구본욱, 「연경서원의 경영과 조선 중기 대구지역의 유학」, 『퇴계학 논집』11호, 영남퇴계학회, 2012.  
구본욱, 「팔공산과 금호강을 왕래하며 강학한 松潭 蔡應麟」, 『조선사 연구』21집, 조선사연구회, 2012.  
권오영·이기순 외, 『조선후기 당쟁과 광주이씨』, 지식산업사, 2011.  
김학수, 「寒岡(鄭述) 神道碑銘의 改正論議와 그 의미」, 『朝鮮時代史學報』42집, 조선시대사학회, 2007.

Abstract

## A Study on Friends and Teachers of Seokdam Lee Yoon-woo

Koo, Bon-Wook

This thesis refers to friends and teachers of Seokdam Lee Yoon-woo(石潭 李潤雨). His two teachers are Modang Son Choe-null(慕堂 孫處訥) and Hangang Jung Goo(寒岡 鄭述). Besides them, Nakjae Seo Sa-won(樂齋 徐思遠) was also a teacher from whom he sought academic guidance for all his life.

However, in recent days, an academic theory was raised that he was one of the disciples of Yi Yulgok.(李栗谷) intensifying controversy. This theory was based on a document recording that Park Se-chaek(朴世采) heard such story from Shin Kyung(申昞), his maternal cousin. Yet, it can be assumed from Song Si-yeol(宋時烈)'s statement that such story lacked objectivity even at that time.

Hometown friends of Lee Yoon-woo(李潤雨) was mostly those of Hangang Jung Goo(寒岡 鄭述). Particularly, Do Sung-Yoo(都聖兪) even left behind a poem about meeting Lee in his dream while Lee was serving as a mayor of the Gyeongseong(鏡城) region. In his later years, when he was leaving for the Damyang(潭陽) region to serve as the mayor, his colleagues presented poems in his honor, which indicate that he was looked up to by many people regardless of political and academic factions.

This thesis cited “the Book of Modang(慕堂集)” and “the Modang Diary(慕堂日記)”, proving that Lee Yoon-woo(李潤雨) studied under Modang(慕堂) before he became a student of Hangang(寒岡). This thesis also verified that even after he got associated with Hangang(寒岡), he still frequented Modang(慕堂) seeking his teaching.

By clarifying Lee Yoon-woo(李潤雨)'s friend-teacher relationships, this thesis has put an end to unnecessary dispute surrounding his scholastic mantle, showing that he is indeed the heir to the Toegye Studies(退溪學).

Key Word

Lee Yoon-woo, Teacher, Son Choe-null, Jung Goo, Toegye Studies.

▪ 논문투고일 : 2015.6.30 심사완료일 : 2015.8.11 게재결정일 : 2015.8.14